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25.(수)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물안전 양극화 해소' 경영 화두로 현장 순회 본격화

- 25일 한강유역본부 시작으로 전국 4개 유역 순회, 주요 물관리 현안 점검
- 경인아라뱃길 홍수 대응체계·수변시설 살피고 현장 중심 물안전 강조
- 국가 핵심 프로젝트엔 제때 물을, 국민에겐 사각지대 없는 물안전 집중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물안전 양극화 해소'를 경영 화두로 내걸고 취임 후 첫 유역본부 업무보고 순회에 나섰다.

양승조 사장은 11월 25일 경인아라뱃길을 찾아 홍수 대응체계와 주요 시설의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핵심 산업을 뒷받침할 수도권 용수 공급과 물재해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4개 유역 현장 순회의 첫 일정이다.

특히, 양승조 사장은 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물안전 양극화 대응을 강조하며 여러 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 현안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취임 당시 첫 번째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국민 생명과 물안전 확보'를 현장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다.

경인아라뱃길은 인천·부천·김포 일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시설이자, 시민들이 자전거와 산책을 즐기는 수변 시설이다. 2012년 개통 이후 총 133번에 걸쳐 굴포천의 홍수량을 서해로 내보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사장은 아라뱃길 통합운영센터에서 귤현보와 서해배수문의 연계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평소 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시 가동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도 점검하며 시민 이용 공간의 불편도 세심하

게 확인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까지 노후 자전거도로 24.3㎞를 재포장했고, 올해 남은 5.4㎞ 구간을 정비하고 있다.

한강유역본부 업무보고에는 유역본부와 현장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양승조 사장은 실무진과 소통을 이어가며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사업 추진 상황, 정책 변화와 이상 기후에 따른 영향 등을 짚었다.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방안도 점검했다. 물관리 업무가 여러 기관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관계 부처·지자체 등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양승조 사장은 이번 순회를 시작으로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유역을 찾아 지역별 물관리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하여 과거 기준에 맞춰져 있던 제도와 대응체계의 한계도 하나씩 짚어 나가겠다”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인 물을 활용해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각지대 없이 물안전 현장을 꼼꼼히 살펴 균형 성장과 안전의 토대를 이뤄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수자원시설처 아라뱃길관리부	책임자	부 장	강대훈 (042-629-3590)
		담당자	과 장	박준한 (042-629-3593)
	신성장전략단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정연석 (042-629-2351)
		담당자	차 장	길준형 (042-629-23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25일,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경인아라뱃길을 찾아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아라뱃길 통합운영센터에서 귤현보와 서해배수문의 연계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평소 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시 가동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사진] 2. 11월 25일,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강유역본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핵심 산업을 뒷받침할 수도권 용수 공급과 물재해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